

기고

아이 키우기 관장은 도시인가 그 질문에서 통합을 논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을 포함한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구역을 넓히고 산업과 재정을 키워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다. 방향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유독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교육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반복됐다. 행정과 산업, 재정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는데, 교육은 늘 뒤로 밀린다는 우려였다. 교육을 행정 효율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통합 이후 오히려 지역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계속 살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모가 묻는다. 여수에서 아이 키우기 관장은? 이 도시의 학교는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가?

청년이 고민한다.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가?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떠난 뒤, 다시 돌아올 이유는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정주 여건이 흔들리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산업도 재정도 버티기 어렵다. 정주 → 인구 → 산업 → 재정 이 흐름의 출발점에 교육이 있다.

그런 점에서 초광역 통합 논의는 교육을 가장 앞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행정구역이 커지는 만큼, 교육 역시 중앙이나 광역 중심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전남은 농업만의 지역이 아니다. 해양과 수산, 에너지와 조선, 환경 등 다른 지역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역시 그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등학교 교육, 직업·기술 교육의 실질화, 대학과 산업단지를 잇는 인재 순환 구조가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껌대기에 그칠 수 있다. 산단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일자리는 있는데 지역 청년은 없는 구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한 가지 아쉬움도 남았다.

초광역 통합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광주 측 교육 행정은 토론 패널로 참여해 목소리를 냈지만, 전남을 대표해 교육 현장의 입장을 직접 전하는 패널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합 논의가 중앙에서 빠르게 진행될수록, 각 지역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 분명히 내야 한다. 전남도, 그리고 여수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지역의 교육과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은 균형이 아니라 흡수가 될 수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청 권한 조정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방식 논쟁에 앞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교육 정책이 과연 아이와 지역의 삶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 논리나 관료적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초광역 행정체제는 단순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머무는 조건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

전남과 여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교육을 부수적인 의제가 아니라 핵심 의제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자라고,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역 경쟁력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의 출발점이다.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이광일

요즘 매우 힘들다고들 말한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현재를 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현재를 살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존재감을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할 리가 있겠는가.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밝은 햇살이 속살까지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인이었다. 그야말로 중세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케 한 선구자였다. 그런 그가 금쪽같은 이 말을 남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흥취한 모습을 하고 보면 흥취해 보이고 꽃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꽃이 되는 것이다.

즉, 어떻게 사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문 수준이 높아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없으면 불행한 것이다. 걱정할 것이 별로 없음에도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서 하면 그 또한 불행이다.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려 현재에 살도록 하면 시간은 현재지만 과거에 파묻혀 살기때문에 불행하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현재로 앞당기게 되면 현재를 살 수 없기때문에 또한 불행이다. 예수께서도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처서 미래의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시간이란 시계가 아니라 자신이 몰입하는 '지금 이순간'이라고 했다. 동서고금의 성인이나 현인 그리고 물리학자까지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는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에 살아. 현재 내 곁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동료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바로 현재를 진정으로 관조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체는 제 중심 무계에 따라서 제 중심으로 기운다.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내가 끌려간다.”고 또한 고백록에서 말했다. 자, 우리들 모두는 이제부터 현재를 사랑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자. 그래서 행복의 정점을 영원히 이어가자. 밝은 햇살이 속살까지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선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선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

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옮겨올 때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음력 12월 1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horoscopes for the date.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Publication information table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